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4. 2.



대구광역시의회

■■■■■■ 목 차 ■■■■■■

I. 출 장 개 요	1
II. 출 장 명 단	2
III. 출 장 일 정	3
IV. 주요 방문지 출장내용	4
1. LA시의회 방문 및 한인의날 선포식 참석 ..	4
2. 재미동포단체(한인회) 간담회	9
3.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 면담	10
4. 영 김 연방하원의원 면담	14
5. 문화 탐방(금문교)	17
6.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방문	18
V. 총평	23

- 자치분권·의정 발전 및 해외우수 지방의회 방문 교류를 위한 -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결과

I. 출장개요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4. 1. 11.(목) ~ 1. 20.(토) / 8박 10일
- 출장국가 : 미국(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 출장인원 : 총 27명(의장 11, 시·도의회 수행직원 11, 협의회 5)
- 출장목적
 - 지방자치기관 비교견학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 및 우수시책 개발
 - 한인의 날 행사 참여 및 연방하원의원 면담
 - 지방분권제도 활성화 사례 연구

□ 방문지별 주요 활동 및 성과

일 정	방문지역	방문기관(행사)	주요 활동 및 성과
1. 12.(금)	로스 앤젤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한인회의 날 선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리, 헤더 헛 의원 면담 - 양 기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 제121회 미주한인의 날 행사 축하 및 선포행사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회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임스 안 총재 등 6명과 만찬 - 미주 한인단체와의 교류확대 - 미주 한인행사 관심 제고 방안 논의
1. 1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하원의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셸 스틸, 영 김 의원 면담 - 양국 간의 우호협력 확대 논의 등 - 한국과 미국의 양 지방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 증진
1. 18.(목)	샌프란 시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맷 도시, 코니 찬, 미르나 멜가 면담 - 친환경 대중교통 운영방안 청취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우수정책 공유 등

II. 출장 명단(27명)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수 행 원		비 고
			직위(직급)	성 명	
충남(단장)	의장	조 길 연	수행원	임 형 배	
부 산	의장	안 성 민	수행원	유 혜 영	
대 구	의장	이 만 규	수행원	김 종 영	
광 주	의장	정 무 창	수행원	김 현 준	
대 전	의장	이 상 래	수행원	권 종 만	
울 산	의장	김 기 환	수행원	김 병 영	
세 종	의장	이 순 열	수행원	차 운 철	
강 원	의장	권 혁 열	수행원	소한미루	
충 북	의장	황 영 호	수행원	구 능 서	
전 남	의장	서 동 욱	수행원	전 지 광	
경 북	의장	배 한 철	수행원	장 병 삼	
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정 유 훈			
	주 무 관	안 성 대			
		전 제 승			
		이 승 윤			
		남 진 라			

III.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1일차 1. 11.(목)	인천 로스앤젤레스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로스앤젤레스 향발(14:30) [11시간 소요] ○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08:30) ○ 호텔 투숙
2일차 1. 12.(금)	로스앤젤레스	○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문 ◆공식일정 : 한인의 날 선포식 참석 ○ 호텔 투숙
3일차 1. 13.(토)	로스앤젤레스	○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연방하원의원 면담 ◆공식일정 : 제121회 미주한인의 날 행사 참석 ○ 호텔 투숙
4일차 1. 14.(일)	로스앤젤레스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 호텔 조식 후 바스토우로 이동(2시간 소요) ○ 라스베가스로 이동(2시간 30분 소요) ○ 호텔 투숙
5일차 1. 15.(월)	라스베가스	○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방문 ○ 라스베가스 공공시설 방문 ○ 호텔 투숙
6일차 1. 16.(화)	라스베가스 바스토우 프레즈노	○ 호텔 조식 후 바스토우로 이동(2시간 소요) ○ 프레즈노로 이동(4시간 소요) ○ 호텔 투숙
7일차 1. 17.(수)	프레즈노 샌프란시스코	○ 호텔 조식 후 샌프란시스코 이동(6시간 소요) ○ 샌프란시스코 공공시설 방문 ○ 호텔 투숙
8일차 1. 18.(목)	샌프란시스코	○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방문 ○ 샌프란시스코 문화탐방 ○ 호텔 투숙
9일차 1. 19.(금)	샌프란시스코	○ 호텔 조식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 출발 / 인천 향발(11:30) [13시간 소요]
10일차 1. 20.(토)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17:30)

IV. 주요 방문지 출장내용

I LA 시의회 방문 및 한인의 날 선포식 참석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12.(금) 09:00~10:30
- 장 소 : Los Angeles City Council
- 참 석 : 존 리 의원, 헤더 헛 의원
- 내 용
 - 미국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의원면담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 양 지역 간 주요현안 논의 및 민간교류 활성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시간대별 세부일정

- <09:10~09:40> 로스앤젤레스 시의원 면담
 - 면담자 : 존 리 의원<한국계>, 헤더 헛 의원<코리아타운 지역구>
 - 장 소 : Los Angeles City Council 4층 회의실
- <09:40~09:50> 기념촬영
 - 참석자 : 의장 11명, LA시의원 2명
 - 장 소 : Los Angeles City Council 3층 미디어실
- <10:00~10:30> 로스앤젤레스 한인의 날 선포식 참석
 - 참석자 : 의장 11명, LA시의회 의장, LA총영사관, 한인회장 등
 - 장 소 : Los Angeles City Council 본회의장
- <10:40~10:45>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기념촬영
 - 참석자 : 충남도의회 의장, 미주한인회장, 한인회 간부 등
 - 장 소 : Los Angeles City Council 3층 미디어실

□ 방문지 현황[로스앤젤레스 시의회]

- 미국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주(州)의회, 카운티(County)와 기초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의회로 구분되며, 의회 및 의원의 명칭이나 인원, 임기, 급여 등의 기준이 주 정부마다 상이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의회는 도시정부(Municipality)와 타운(Town) 또는 타운십(Township)으로 구분됨. 도시정부는 시(City), 타운(Town), 버러(Borough), 빌리지(Village)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시(City)가 가장 보편적인 도시정부의 형태임.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광역권) 내에서 로스앤젤레스 시티만을 관할로 하는 지방의회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 세금이나 공공사업 및 계약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짐. 또한 LA시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음.
- 시의원은 청사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각각 보좌관을 두고 있으나, 시의원 보좌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음.

□ 면담 시 주요 질의응답 및 논의사항

○ LA시의회 소개와 의장 선출방법

- 소개 및 질의(조길연 충남의장) : 우리 협의회는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입니다. 한국은 4년에 한번 씩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들을 선출하게 되고, 의원들은 다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지방의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LA시의회 역시 미국의 지방 분권제도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의회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 현황과 LA시의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답변(존 리 의원) : LA 시의회는 현재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총 15명의 의원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며, 최대 3선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홀수년도의 하반기에 의장과 의장대행을 선출하며, 이렇게 선출된 의장은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깊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로의 지방자치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 지역 간의 교류 확대방안은?

- 질의(안성민 부산의장) : 부산시의회와 LA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이곳에서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체결식 이후에 다시 LA의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당시 맺은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록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로 지지해준 미국 정부와 LA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국의 각 지역과 LA시의회와의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답변(존 리 의원) : 네. 다시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당시 LA 시의회와 부산시의회는 우호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간의 경제·문화 등 다방면 교류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역, 금융, 산업 경쟁력에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서울과 LA지역 사이의 민간 무역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한국의 서울과 부산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활발한

만남과 도시 외교를 통해 양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대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미국 내 한인의 권익 향상 및 교류 활성화 방안

- 질의(이순열 세종의장) : LA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양 기관 간의 교류를 확대 하고 협력을 증진하여, 한국 주민들과 미주 한인 간 교류 강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헤더 헛) : 좋은 말씀입니다. 제 지역구인 10지구에는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인 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을 향상시킬 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는 한국계인 존 리 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미국의 강한 힘은 다양성과 상호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성 중에 한국의 문화도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의 풍습과 한글 사용을 이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한인들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인 들의 행사에 많은 미국인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121회 한인의 날 행사에도 많은 의원들과 미국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LA시의회는 한국의 지방의회 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한인들의 전통계승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체제 및 운영방안

- 질의(서동욱 전남의장) :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체제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복잡한 지방자치 제도가 운영 상의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은 없는지, 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가져오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존 리 의원) :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크기, 인구, 특성 및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카운티, 시티 등이 있으며, 그 안에서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회의 구성 역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 경우와, 단일 의회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회에서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등 시장과 의원의 권한 및 기능 역시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이를 미국의 다양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지만 다양한 지방자치운영체제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사회를 좀 더 세분화하여 대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주민들을 위한 촘촘한 입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통일되지 못한 구조가 행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사진**



면담



기념촬영



기념촬영



한인의 날 선포식 참석

2

재미동포단체(한인회) 간담회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12.(금) 18:00~19:30
- 장 소 : Los Angeles City Council
- 참 석 : 의장 11명, 제임스 안 회장 등 한인회 5명
- 내 용
 - 재미동포단체와 교류 확대방안 논의
 - 양 지역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모색

□ 간담회 주요 내용

- <한인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한국의 관심 확대 요청
 - <협의회> 미국 재외동포단체 중 지역별 단체(예 : 강원 도민회 등)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를 통한 홍보 강화
 -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도시 외교 강화를 통한 한글날 행사, 한인의날 행사 지원 강화
- <한인회> 한국과 미국 민간분야의 문화, 체육 교류 확대 요청
 - <협의회> 민간분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중요성 공감대 인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
 -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뿌리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보급사업 등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심을 갖도록 노력
- 한국 지자체와 동포사회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강화
 - 지역별로 재외동포 문화예술인, 경제인 등이 한국의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공동 발굴 등
- 이민자 삶의 애환 및 교민 활동에 대한 청취 및 의견교류

□ 관련사진



간담회



기념촬영

3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 면담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13.(토) 11:30
- 장 소 : 캘리포니아주 사이프레스 市 지역사무실
- 참 석 :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 보좌관
- 내 용
 - 한국과 미국의 양 지방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 증진
 - 한국의 각 지역과 미국 간의 문화교류 확대방안

□ 면담 시 주요 질의응답 및 논의사항

- 질의(조길연 충남의장) : 미국 중앙 정치권에서 '코리안 파워'를 실현하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의원님의 성장 과정과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의원님을 존경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지방자치의 운영 현황을 직접 보니, 모든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무엇보다 돋보

였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몸소 느낀 점들을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에 잘 접목하여서 보다 나은 정책을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 답변(미셸 스틸) :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국에도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가끔씩 언론을 통해 서울과 한국의 도시 이름을 접할 때마다 매우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와 한국의 지방의회는 관할구역과 기능이 일부 다르지만, 그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양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의(권혁열 강원의장) : 의원님께서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늘 예민한 사항입니다.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미셸 스틸) : 몇 년 전 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고, 공개적으로 그 교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갈 생각입니다.
- 질의(이만규 대구의장) : 감세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미셸 스틸) : 개인적인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초창기에 학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돈을 조금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법이 매우 엄격하고 세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제도에 무지했던 저는 번 돈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이를 경험 삼아서 의원 당선 후에 감세정책에 관심을 가졌고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서 세금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미국의 세금제도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질의(정무창 광주의장) : 미국 연방의회는 한국의 국회 및 지방의회와 크게 보면 비슷한 기능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방하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미셸 스틸) : 연방하원은 상원과 달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배정되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은 주의 의원들이 회의에서 발언권이 강한 편입니다. 현재 정원은 441석이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의원들은 2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그때 모든 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한국은 4년마다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임기는 짧은 편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유는 미국은 각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어서, 하원의 임기를 짧게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더 자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질의(이순열 세종의장) : 의원님께서서는 어린 시절 가족 분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오신 것으로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 답변(미셸 스틸) : 저와 가족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 직업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은 미래와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심한 차별을 받아야 했고, 부모님과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 하여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LA폭동이 발생하였고 가까이에서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인사회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의 뜻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 모습을 당시 리처드 라오단 당시 시장이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청에서 여러 업무를 맡았고 시의원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사진**



면담



기념촬영

4

영 김 연방하원의원 면담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13.(토) 16:00
- 장 소 : 로스앤젤레스 새누리교회 사무실
- 참 석 : 영 김 연방하원의원, 보좌관
- 내 용
 - 한국과 미국의 양 지방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 증진
 - 한국의 각 지역과 미국 간의 문화교류 확대방안

□ 면담 시 주요 질의응답 및 논의사항

- 질의(조길연 충남의장)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직접 뵙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의원님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의원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LA에서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들과 한인의 날 선포식을 함께 하고, 한인회 임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보니 미국사회에서 한인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고 큰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 답변(영 김 의원) :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중요한 분들이 방문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남이 굳건한 동맹인 양 국가 간의 우호협력을 증대하고, 미국 한인사회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의(김기환 울산의장) : 연방하원 의원 중에 한국계는 4명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한분을 직접 뵙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의원님

께서는 미국 공공기관의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규모가 막대한 만큼 예산심의 과정이 더욱 중요할 텐데 미국의 예산심의 과정과 미국 연방의회만의 특징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영 김 의원)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예산심의를 위하여 상원과 하원에 예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우선 순위 편성을 위해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합니다. 이 곳에서 모아진 자료를 토대로 의원들로 구성된 13개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작업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의 예산안 상정, 심의 및 본회의의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든 예산심의 절차는 상원과 하원에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렇게 양원제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집니다. 아울러 줄속입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이상래 대전의장) : 의원님께서서는 소수민족 권리향상과 여성인권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영 김 의원) : 맞습니다. 특히 저 역시 한국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특히 미국의 소수민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더욱 한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

의장님들과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동포와 한국과 북한에 있는 여성과 아동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 질의(황영호 충북의장) : 오전에 만났던 미셸 스틸 의원과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친구가 미국 사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 답변(영 김 의원) : 그 친구와는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친해서 자녀들끼리도 친하게 지냅니다. 가끔 정책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조언도 해줍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미국(괌)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왔던 것도 같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선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 관련사진



면담



기념촬영

5

문화 탐방(금문교)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18.(목) 14:00

○ 장 소 :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 참 석 : 의장 10명

○ 내 용

- 교량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및 수입창출 현황 현장 확인
- 주변 편의 및 홍보시설, 우리나라 자치단체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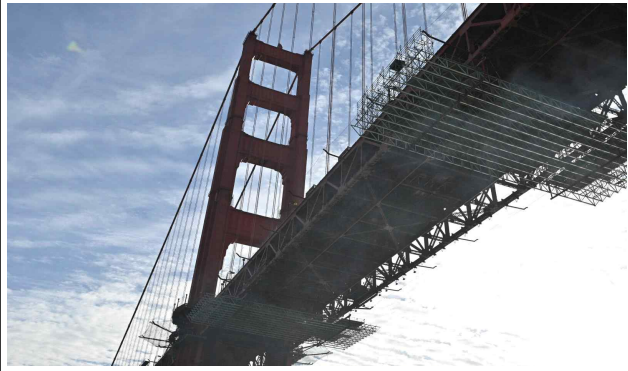
○ 방문결과

-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특색 있는 구조 등이 금문교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량으로 만든 것처럼 한국 각 지역에 주요 시설물 건립 시 향후 상품화 방안과 보존성까지 고려한 특색 있는 설계와 공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
- 특히, 건축 시 사용한 자재를 그대로 전시하고 건축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여러 사인물과 전시물 등으로 쉽게 표현함으로써 방문객들로 하여금 이 장소를 더욱 크게 각인시키는 것이 인상적임.
- 市에서는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함으로써 상품 수입을 늘리고,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게 됨.

○ 시사점

- 한국에도 시설 면에서 뒤지지 않은 교량(부산 광안대교, 전남 목포대교, 세종 이웅다리 등)이 있는 만큼, 시설물을 활용한 체험시설 마련, 특수효과를 통한 시각적 디자인 조성, 특색있는 홍보물 전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사진

	
<p>금문교</p>	<p>금문교</p>
	
<p>홍보관</p>	<p>건축 나사 상품화</p>

6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1. 18.(목) 10:00~10:30
- 장 소 : 샌프란시스코시 청사 2층 회의실
- 참 석 : 맷 도시, 코니 찬, 미르나 델가 슈퍼바이저
- 내 용
 - 미국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의원면담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 양 지역 간 주요현안 논의 및 민간교류 활성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시간대별 세부일정

○ <10:00~10:30>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면담

- 면담자 : 맷 도시<법률위원회 위원장>, 코니 찬<예산위원회 위원장>, 미르나 멜가<토지 및 교통위원회 위원장>
- 장 소 : 샌프란시스코시 청사 2층 회의실

○ <10:30~10:40> 기념촬영

- 참석자 : 의장 11명,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3명
- 장 소 : 시청사 1층 광장

□ 면담 시 주요 질의응답 및 논의사항

○ 질의(서동욱 전남의장) : 한국은 최근 노동인구보다 비노동인구가 더 많아지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서부는 이민자의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대비책과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소개 해주실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코니 찬) : 미국은 영주권이 없어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이민자에게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범죄, 차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지만, 고학력 전문가 이민과 투자 이민을 통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이민에 더욱 우호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는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6개월 정도 걸리는 이민국 심사를 15일로 줄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민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해 발급 가능한 이민 비자 개수의 7% 이상을 한 국가 출신이 발급받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 놓습니다.

- 질의(이만규 대구의장) : 샌프란시스코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시스템 확립은 삶의 질과 환경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현황과 교통수단별 운영상황 및 노하우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맷 도시) :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은 여러 대중교통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여러 교통(BART 열차, 노면전차, 시내버스 및 트램, 케이블카, 광역버스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市)는 이동수단이 모두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시 산하 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임은 여행 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여행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납부도 가능합니다.
- 답변(미르나 멜가) : 수요가 많은 유니온 스퀘어(Union Square) 지구 등에는 굴절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노면전차 및 굴절버스 등의 통행속도와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해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승객 탑승을 위한 정차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구역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굴절버스 및 일반버스는 대부분 초저상 버스가

운영되도록 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당연히 경전철 등과 환승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조길연 충남의장) : 오늘 숙소에서 이곳까지 이동하면서, 도로 곳곳에 자전거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궤도 전철버스, 하이브리드 버스 등 친환경교통수단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당국에서 친환경 대중교통을 적극 장려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맷 도시) : 샌프란시스코의 운영목표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 중인데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한 부분을 자전거전용 차로로 할애하여 자동차와 함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고자 할 경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두어 버스기사에게 승차표시를 하면 자전거 거치 후 버스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물론, 자전거 사용이 활성화된 데에는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유니온스퀘어, 현대미술관, 차이나타운 등 주요 장소들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특수성도 한몫 할 것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다양한 문화 및 편의시설들이 밀집된 작은 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 질의(배한철 경북의장) : 샌프란시스코에는 대형 IT 기업들의 본사가 있고 이와 관련한 국제행사도 크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市)에서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역 여행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코니 찬) : 우리는 블레저(Business+Leisure) 여행자를 중요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 가족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비즈니스만을 위해 방문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市)에서는 블레저 여행객들이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샌프란시스코에 더 길게 머무르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슈퍼바이저들도 그러한 정책을 잘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 답변(미르나 멜가) : 이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 중이고, 관련 예산도 늘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샌프란시스코관광청은 국제 행사나 컨벤션이 열리는 곳에 유명식당이나 볼거리, 체험거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자 등을 배포하여 MICE 산업의 파트너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레저 여행자들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등의 지역들로 여행을 확대하기 때문에 인근 행정기관과도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관련사진



면담사진



면담사진



기념촬영



면담사진

V. 총평

□ 방문 목적 및 배경

- 금번 미국 방문은 미국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의원면담을 통한 우수 시책 벤치마킹을 주 목적으로 하였으며,
- 아울러 양 지역 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교류 활성화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 또한 세계적인 명소를 통해 관광 수입을 올리는 미국의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함.

□ 방문지별 주요 내용

- LA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주한인 커뮤니티의 미국 내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미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자치 구조가 미국의 힘이라고 상징되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을 체감함.
- 또한, 현지 한인들의 한국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민간분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미국 연방하원의원(미셸 스틸, 영 김)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간의 우호협력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 연방의회 주요 안건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음.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방문을 통해서도 다민족 국가의 민의 수렴 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우수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체험할 수 있었음.